

가메오 성

기쿠치시 중심부의 남서쪽 언덕 위에 있던 가메오 성은 기쿠치 가문이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와이후를 지키기 위해 구축한 십여 곳의 중세 시대 성 중 하나입니다. 가메오 성은 북쪽은 기쿠치 강, 남쪽은 사코타 강을 끼고 있는 높은 건물로,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입지였습니다. 중세의 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, 주로 피난처로써 사용됐으며 항상 사람이 있던 곳은 아니었다고 짐작됩니다.

1370년대 기쿠치 가문이 무가가 주도하는 중앙 정권인 아시카가 막부와 싸우던 시기에 가메오 성은 아시카가군인 이마가와 료순(1326-1420)의 소유가 되었습니다. 료순과 그의 아들은 기쿠치 가문을 향한 마지막 공격에 대비해 성에 1만 명 이상의 무사를 모았다고 합니다. 참고로 이마가와 료순은 1371년부터 25년간 규슈 단다이(규슈 지역을 총괄하기 위해 막부가 둔 직책)로 임명되었습니다. 이사이에 [고려](#)의 사신 [정몽주](#)를 비롯하여 고려와 다양한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. 왜구를 진압하고 포로가 된 고려인의 송환에도 힘을 쏟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현재 가메오 성터는 기쿠치 평야와 기쿠치시 중심부를 내다볼 수 있는 공원이 되었습니다. 물이 없는 해자(성을 지키기 위해 성의 둘레에 파놓은 구덩이)의 일부와 옛날에 성의 혼마루(중심부)가 있었던 구획은 복원되었습니다. 인근에는 신사도 있습니다.